

보건관리			번호: J - A - 9		
제 목	국문	우리나라 사망 불평등 양상의 변화 추이			
	영문	Trends of Inequalities of Death Rate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문	정백근 <sup>1)</sup> , 김준연 <sup>1)</sup> , 윤태호 <sup>2)</sup> 1)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 교실			
	영문	Baekgeun Jeong <sup>1)</sup> , Joon Youn Kim <sup>1)</sup> Tae Ho Yoon <sup>2)</sup>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ong-A University 2) Department of Health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0월				
<p>1. 연구 목적</p> <p>인구집단의 건강 및 사망은 보건의료체계 내부의 요인들보다는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건강 및 사망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보건의료체계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불평등을 측정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건강의 경우 이에 대한 정의와 측정이 불명료한데 비해서 사망은 건강과 불건강이라는 연속선상에서 건강장애의 최종결과라는 명료한 사건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으므로 더욱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망에서의 불평등은 연령, 성과 같이 변경할 수 없는 요인들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변경가능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양산되는 측면도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사망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제안하였는데, 지역, 사회계층,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들 중 지역, 교육수준, 직업을 중심으로 1995년과 2000년의 생산연령인구의 사망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이러한 불평등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p> <p>2. 연구 방법</p> <p>본 연구를 위해서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1995년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1995년과 2000년 사망원인통계원자료를 이용할 계획이다. 이를 이용하여 지역별, 교육수준별, 직업별로 성별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을 계산할 예정이다. 이 때, 분석대상은 15-64세 사이의 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이 중 직업분류상 무직, 학생, 군인, 가사, 미상은 제외할 것이다. 표준인구는 1995년 각 항목별 성별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 계산시는 1995년 성별 연령별 총인구를, 2000년의 경우에는 2000년 성별 연령별 총인구를 이용할 것이다. 지역별 사망 불평등은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별, 시·군별로 나누어 측정할 것이며, 교육수준별 사망 불평등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이상으로 나누어서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직업별 사망 불평등은 두가지 측면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하나는 사망원인통계원자료에서 분류한 직업분류 중 무직, 가사, 학생, 군인, 미상을 제외한 9가지 직업분류별 사망 불평등을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상위계층과 나머지 직업군과의 불평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5</p>					

년과 2000년의 각 항목별 사망 불평등을 비교해 보면서 사망 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3. 연구 결과

연구 종료 후 발표

4. 고찰

연구 종료 후 발표